

제시문<가>,<나>,<다>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서술한 글이다.크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다는 전제를 가진 <가>와 <다>를 공통점있는 글로 묶고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 차이가 없다는 전제를 한 <나>와 비교할 것이다

제시문<가>의 판사와 용모는 동물을 가치에 따른 평가를 통해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기본적으로 인간을 유용성에 따라 보호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는다.그러나 용모는 동물은 자신의 농작물 피해로 인해 동물을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동물을 유용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또한, 판사도 동물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을 통해 이미 말속에 동물을 가치에 따른 판단을 전제할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즉,인간과 달리 동물은 가치에 다른 판단이 개입되어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제시문<다>는 인간은 인간을 직접적인 의무를 통해 보호해야하고 동물은 간접적인 의무를 통해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즉,인간과 동물에 따라 직접적 의무,또는 간접적 의무로 나눔으로서 제시문<가>처럼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통점이 보인다.하지만<가>와 달리 가치가 아닌 당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제시문<가>,<다>와 달리 자연선택 이론을 통해 동물과 인간은 진화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물과 인간은 근본적차이가 없음을 보인다.또한,종의 우열을 따지는 것은 인간의 종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에 불구하며 인간과 동물은 생존에 따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이 아님을 주장한다.

흔하게 인간은 우열이라는 단어와 차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른 종,또는 생명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이 지문들을 통해 과연 인간이 다른 생물,자연 등을 지배해도 되며 인위적 조작을 가해도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다.